

03

태국

Thailand

## 인생 제3막(幕)의 한 가운데서

- › 활동기관 : 태국 재무부 국세청
- › 자문분야 : 정보 통신
- › 자문내용 : 세무 행정 시스템 자문
- › 성 명 : 이영호



## 하프타임 동안 후반전을 준비하다

2010년 정년퇴직에 즈음하여 내 또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주 등장했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인생 후반전에 대한 이야기였다. 인생을 축구 경기처럼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눈다면 정년퇴직은 후반전의 시작이리라. 그만큼 중요한 시점을 제대로 준비해 보지는 다짐도 여러 번 했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평균 수명이 늘어난 때에 인생을 전반과 후반으로 양분하는 것은 부족한 듯하다. 좀 더 세분하는 것이 어떨까?

우선 인생을 1년으로 축약하고 다시 4계절로 나눠 보면 유·소년기는 봄, 청년기는 여름, 장년기는 가을, 그리고 노년기는 겨울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백세 시대에 걸맞게 인생을 백 년 정도의 연극에 비유해 4개의 막으로 나눈다면 어떨까? 각자의 처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 막은 대략 25살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분에 맞추어 보면 현재 내 나이 육십 대 중반을 향하고 있으니 이제 인생 제3막 한 가운데쯤 서 있는 셈일 것이다.

나의 인생 제3막은 이른바 뉴밀레니엄 시대의 서막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즈음 <하프타임> (밥 버포드 지음, 김성웅 옮김, 낮은울타리 펴냄)이라는 책을 읽은 기억이 난다. 저자는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축구 경기의 하프타임처럼 인생 후반전에 임할 준비를 위해 시간적 여유를 가지라고 권면했다. 실제로 동년배들 중에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안식년 휴가를 받아 뭔가 생각할 겨를을 갖고자 했던 친구들도 있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여유가 없었는지, 막간(幕間)의 달콤한 휴식도 맛보지 못한 채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했었다.

하지만 후반전을 위한 준비는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제·경영이었던 전문 분야를 정보 기술로 바꾼 나였기에 항상 학술적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대학원에 진학하여 정보 기술 분야를 체계적으로 공부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잘한 일이었다. 또한 장년층 건강에 수영이 좋다는 권유로 젊은 친구들과 함께 수영을 배웠던 것, 국선도를 만나 몸과 마음의 단련법을 깨닫게 된 것도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데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

## 자유인이 될 것인가, 다시 뛰어들 것인가

드디어 정년퇴직을 하던 날. 반평생을 근무했던 직장을 떠나는 만큼 아쉬움도 컸지만 그간 열심히 일했으니 여생을 여유롭게 보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정년퇴직 시점을 인생극장에 비유해 보면 제3막의 전반부도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한 번 멈추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 들었고, 일하던 손을 갑자기 놓았을 때의 허탈감도 걱정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정년퇴직 이후로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었다.

정년퇴직 후 출근하게 된 곳은 컨설팅 회사였고, 상임 고문으로서 내가 할 일은 컨설턴트들을 위한 컨설팅이었다. 정년퇴직 전부터 대학원 강의를 계속해 왔고, 성격상 누군가에게 조언하기를 좋아하는 내게 딱 들어맞는 자리였다. 특히 컨설턴트 양성 과정의 일종인 인턴 코스를 주관하면서 젊은이들의 진취적인 생각과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기도 했다.

컨설팅 회사 입사 당시 마음먹었던 대로 2년이 되는 날 퇴사를 하고 드디어 스스로에게 하프타임을 선사했다. 자유인이 된 후 처음 한두 달은 집 주변의 여러 산들을 부지런히 다녔다. 평일에, 그것도 혼자 해 본 적이 별로 없는 등산이었기에 어색했지만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친해지게 되면서 금세 익숙해졌다. 무엇보다 자연 속에서 만끽하는

맑은 공기와 탁 트인 시야가 그동안 좁은 사무실에 갇혀 지냈던 지난날을 보상해 주는 듯 해 기분이 좋았다.

평소 흥미를 가졌던 분야의 책들도 마음껏 읽을 수 있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모처럼 짬이 생겨도 피곤하다는 핑계로 전문 서적조차 들여다보지 못한 게 사실이다. 허나 이제 편한 장소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온종일 책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 충분히 신이 났다. 아침에 집을 나와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늘 가벼웠다. 한동안은 집 근처 시립 도서관에서 청소년기에 접했던 삼국지나 셰익스피어 등을 다시 들춰보는 재미에 푹 빠졌었다. 이후로는 좀 더 다양한 읽을거리를 찾아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을 찾기도 했다. 막연히 꿈꿔 왔던 내 인생의 후반부가 이렇게 이어져도 그다지 나쁠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여유로움은 은퇴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일을 하던 친구와 만나게 되면서 끝을 맺게 되었다. 그 친구는 1970~80년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끈 주역들이 자의반 타의반 너무 일찍 은퇴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말했다. 더욱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심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현역에서 일찍 물러나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라며 열변을 토했다.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 퇴직자의 재취업 문제는 결국 노년층 구직자와 구인자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 싶었다. 사실 이 땅의 많은 노년층들은 하고자 하는 충분한 열정과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나이라는 굴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하게 된다. 더욱이 구인자는 구직자의 열정과 능력을 믿지만 이들이 젊은이들의 상급자가 아닌 조력자의 입장에서 조화롭게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노년층, 특히 전문직에 종사했던 퇴직자들의 재취업이 더더욱 어려운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 새로움을 선택하다

친구와의 만남 이후 나는 이대로 은퇴자의 삶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설 것인지 고민에 빠졌다. 60세를 갓 넘겨 은퇴자의 길에 접어든 나로서 100세 시대를 변화 없이 사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았다. 더욱이 지금의 시간은 스스로에게 선사한 하프타임이 아니었던가. 이내 재취업을 결심한 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국내보다 해외에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섰다.

월드프렌즈 NIPA 자문단 프로그램은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때마침 모집 공고가 나왔다. 내가 찾던 최선의 일이라고 판단한 나는 베트남 지적재산국립사무소(NOIP)의 '특허 행정 시스템 개선 분야'에 지원했다. 사실 반평생 금융 기관에서만 일한 나였기에 특허에 관해서는 문외한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어느 분야의 시스템이든 정보 기술이라는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무엇보다 베트남은 컨설팅 회사 재직 시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고, 그러는 동안 대부분의 공공 기관이 정보 시스템 현대화에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13년 3월, 최종 합격 통지를 받은 나는 즉시 특허와 관련된 공부를 시작했다. 출국까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안내를 받은 터라 그사이 최대

한 많은 정보를 확보할 심산이었다. 대전에 있는 특허청 관료를 만나 우리나라 특허 제도와 정보 시스템 현황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베트남어도 조금씩 공부하면서 베트남으로부터의 파견 동의 소식을 기다렸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소식이 없었다. 내가 답답했던 것 이상으로 곤혹스러웠던 NIPA 담당자가 차라리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물어 왔다.

주어진 선택의 폭이 넓지는 않았으나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곳 중에 태국 재무부의 '세무 행정 시스템 자문'이 남아 있었다. 다행히 직장 생활 초창기에 세출입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한 만큼 낯선 분야는 아니었다. 태국으로부터 파견 동의 답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초적인 태국어를 익히는 한편 국세청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세무 행정 시스템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도 습득하였다. 그러나 이곳에도 암초가 기다리고 있었다. 태국의 정정이 불안하니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때까지 파견을 늦추어 달라는 연락이 왔다. 결국 해를 넘겨 2014년 1월 말경에야 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막상 태국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데모대에 의해 청사가 폐쇄되는 바람에 2월 하순경에야 사무실에 출근할 수 있었다.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사무실을 배정받은 후 직원들을 일일이 방문해 인사를 나누는 등 자문관으로의 첫발을 내디뎠다. 처음 한두 달은 데모대가 수시로 청사 앞을 점거하는 통에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우선 파견 기관 책임자인 담당 국장과의 협의를 통해 자문관 활동 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자문관 활동을 시작했다. 계획서는 간단했지만 1년 동안 할 일을 주제별로 분류한 후 일정표를 덧붙이는 것으로 했다. 그 다음으로는 홈페이지 및 연차 보고서, 국세청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면담을 통해 파견 기관의 사명, 비전, 전략, 조직 및 주요 업무 등에 관한 현황 파악에 나섰다. 코위커로부터 태국 국세청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정보기술국 간부 미팅에 참석하여 주요 현안 사항을 파악하는 등 이후의 자문관 활동을 착실히 준비했다.

## 2014년 1분기 활동



자문관으로서의 데뷔전은 후아힌(HuaHin)이라는 휴양지에서 열린 팀 단위의 소규모 워크숍이었다. 후아힌은 파타야나 푸껫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니다. 하지만 태국 국왕의 별궁이 있어 태국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곳이고, 뛰어난 아름다움으로 서양 사람들이 태국 최고의 여행지로 꼽는 곳이기도 하다. 워크숍은 ‘태국 국세청의 재해복구센터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이슈 점검’

이 주제였다. 현직에 있을 때의 백업센터 구축 경험을 살려 무리 없이 발표를 마칠 수 있었다.

후아힌으로 가는 길에 지방 세무서를 두세 군데 들렀는데 그곳 세무서장들이 모두 여성이었다. 태국은 우먼 파워가 강해 고위직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매우 높다. 인사차 들른 어느 세무서장실 벽에 한자로 복(福)자가 새겨진 액자가 걸려 있었다. 서장에게 그 뜻을 아는지 물었더니 장식용으로 걸어 놓았을 뿐 뜻은 잘 모른다고... 내가 중국식 발음은 모르지만 웬만한 한자는 우리식으로 읽고 쓸 수 있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는 눈치였다. 태국 사람의 10% 이상이 중국계임에도 한자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현지 사정을 감안할 때 내 한자 실력이 꽤나 의외인 모양이었다.

첫 번 세미나가 소규모였다면 두 번째 세미나는 정보기술국장을 비롯해 300여 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정식 데뷔전이나 마찬가지였다. 발표자로 나선 나는 우리나라 국세청에 대한 소개를 차분히 이어갔다. 기획재정부의 독립 기관인 국세청의 성격을 비롯해 조

직 구조, 비전 및 목표, 세금 징수 실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납세자 중심의 세무 행정과 납세 의무 준수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현금 영수증 시스템’ 및 ‘세무 행정 종합 시스템 (TIS: Tax Integration System)’ 등 전자 세무 행정 시스템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덧붙였다.

세미나 후에는 피드백을 얻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자문관의 세미나가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며 세미나를 정례화하자는 의견과 우리나라 국세청의 주요 정보 시스템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아울러 2시간 정도의 세미나가 다소 지루했다고 하며 시간을 줄이거나 중간에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어느 나라, 어느 조직에서건 길게 진행되는 세미나는 내용의 좋고 나쁨을 떠나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내가 속한 부서는 정보기술국(Bureau of Information Technology)이었는데, 전자 세금 계산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국에서도 세미나 의뢰가 들어왔다. 우리나라의 전자 문서 표준화 현황과 적용 기술을 소개해 달라는 것이었다. 전자 세금 계산서에 적용된 전자 문서 표준화는 NIPA에서 주도해 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자료를 구할 수 있었다. 세미나에서는 전자 문서 표준화 외에 NIPA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를 소개해주었다.

세미나 외에도 여러 직원들로부터 자문 요청이 쇄도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빅 데이터를 활용한 세금 포탈 방지 사례’, ‘세무 당국의 바코드 활용 현황’, ‘시스템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도입 방안’, ‘개도국 세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국제 교육 프로그램’, ‘한국 국세청의 납세자 번호 부여 체계’, ‘데이터센터 관리 및 개선 방안’ 등 다양한 분야였다. 덕분에 나의 자문 활동 첫 분기는 각종 답변 자료를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흘러갔다.

이윽고 분기 보고를 하는 날이 다가왔다. 자문관 활동 보고 항목 가운데 현지 생활 정보



를 무엇으로 채울까 고민하다가 태국에 들어온 이후 가장 민감하게 다가왔던 기후, 주거 환경, 그리고 교통 여건에 대해 언급하기로 했다. 우선 기후는 열대성으로 3월부터 5월까지의 평균 기온 34도 정도로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다. 6월에서 10월까지의 평균 29도 정도의 날씨로 우기에 해당되고,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가 덥지만 아침저녁에는 20도 가까이까지 내려가 일교차가 크다.

주거 생활을 보면 아직은 대부분의 국민이 단독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다만 방콕 등 대도시에는 우리나라의 나 홀로 아파트와 유사한 형태의 콘도들이 산재해 있는데, 많은 외국인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교통의 경우 수도인 방콕은 지상 전철(BTS: Bangkok Mass Transit System)과 지하 전철(MRT: Mass Rapid Transit)이 있어 시내 주요 지점 간 이동이 비교적 여유롭다. 그러나 운임이 10개 정거장 기준 40บาท(한화 1,400원 안팎) 정도로 다른 물가에 비해 다소 비싸 서민들은 주로 ‘랩짱’이라 불리는 오토바이나 세발 택시인 ‘뚝뚝’을 이용한다. 택시는 어디서나 탈 수 있을 정도로 많으며 기본요금 또한 35บาท(한화 1,400원 안팎)으로 저렴하다. 다만 시간 및 거리 병산제가 실시되어 출퇴근 시간에는 의외로 많은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2014년 2분기 활동

2분기 활동의 하이라이트는 태국 국세청장을 비롯한 거의 모든 간부가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 태국, 싱가포르 등 3개국의 세무 행정 시스템을 비교 설명했던 세미나였다. 각국 세무 당국의 홈페이지와 최근의 연차 보고서, 그리고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에서 발간한 <Tax Administration 201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라는 보고서가 발표 자료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했지만 세미나 진행 상황이 화상 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지방 국세



청까지 실시간으로 전송된다는 말에 약간 긴장이 되었다. 그러나 각국의 국화(國花: 태국의 계수나무, 한국의 무궁화, 싱가포르의 난초)로 장식한 발표 자료의 표지 디자인이 참 멋있다는 사회자의 코멘트로 긴장을 풀 수 있었고, 발표도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발표 후 예기치 못한 질문도 있어 다소 애를 먹었지만 코워커의 재치 있는 통역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발표를 마친 후 태국 국세청이 어떤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가를 알게 되었고, 그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기를 마련해 줘 고맙다는 청장의 인사말을 들으니 세미나 준비 과정에서 쌓인 피로가 싹 가시는 듯 했다.

태국 정보 기술 분야의 모든 사업은 2011년 태국 정보통신부가 수립한 중장기 정책 프레임 워크인 ‘Smart Thailand 2020’에 기반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태국 중부에 위치한 ‘Nakhon-Nayok Province’가 정보화 시범 주로 선정되어 있었는데,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그곳을 견학했다. 먼저 부지사로부터 태국 지방 정부의 정보화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청취할 수 있었고, 시범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 정보 시스템의 실제 운영 사례도 들을 수 있었다.

웹을 기반으로 지리 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개발된 주민 정보 시스템은 각 가구의 주소 및 위치 정보, 구성원의 사진을 포함한 인적 사항 등 주민 행정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태국의 정보 기술 분야가 그다지 낙후되어 있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 태국은 2012년 UN의 ‘전자 정부 개발 조사’에서 92위를 차지하여 세계적으로는 중위권에 머물러 있으나 일본 와세다대학이 발표한 ‘2014년도



3개국 세무 행정 비교 세미나(2014.05.)

ASEAN 국가 전자 정부 순위'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전산 장비를 특별한 보호 장치 없이 개방된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과 개인 정보를 특별한 조치 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해주었다. 시연을 마친 후에는 국세 행정 시스템과 주민 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2분기에는 현지 생활 정보로는 나에게 익숙한 은행과 통신 분야에 대해 보고하였다. 2014년 1월 1일 현재 태국에는 상업 은행 14곳과 외국계 자회사 2곳, 14개의 외국계 은행 지점, 34개의 외국계 은행 대표 사무소 등이 있으며, 주요 상업 은행으로는 Bangkok Bank, Siam Commercial Bank, Kasikorn Bank, Krungthai Bank, TMB, United Overseas Bank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이 방콕에 연락 사무소를 두고 있을 뿐 상업 은행은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철수한 이래 아직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태국 간 점증하는 교역 규모나 활발한 인적 교류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상업 은행의 태국 진출은 시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로 느껴진다.

통신 인프라는 LTE와 같이 첨단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용에 큰 불편이 없을 정도는 갖추어져 있다. 이동 통신의 경우 아직까지 3G가 대체를

이루고 있으나 한국에서 사용하던 모바일 폰에 50bat(한화 1,700원 안팎)이면 시중 어디서나 구입이 가능한 유심 칩을 끼우는 것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통신 요금은 충전식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비용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 2014년 3분기 활동

3분기 활동은 우리나라의 현금 영수증 시스템을 소개하는 세미나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현금 영수증 제도가 도입되었다. 도입 초기에 40%에 미치지 못하던 현금 및 카드 사용 비율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 90%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하며 정착 단계 진입되었다. 이러한 성공은 강력한 법적·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현금 영수증 복권 사업 실시 등 부단한 홍보 노력의 결과였다는 점을 세미나 중에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세미나 발표 후 토론 과정에서 태국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여건이 현금 영수증 제도 도입에 호의적이지 못하여 당장 제도를 도입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태국 국세청은 본청 외에 전국적으로 12개의 지방 국세청을 두고 있는데 각 지방 국세청마다 별도의 전산 조직을 가지고 있다. 정보기술국에서는 각 조직에 산재해 있는 간부들 간 의사소통을 위해 매년 정기적인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올해는 유명한 휴양지 파타야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나를 초청해 주었다. 30여 년 전 처음 방문했던 파타야는 조용한 해변 휴양지로서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기억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보니 도시 전체가 뭉치 모르개 어수선하고 문란해져 버린 것 같은 분위기여서 아쉬움이 남았다.

워크숍 내용 가운데 인상 깊었던 것은 ‘국세청 정보 기술 혁신 방안’을 주제로 한 조별 토론 시간이었다. 토론은 참가자들을 5개 그룹으로 나눈 뒤 조별로 커다란 종이 위에 조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스티커로 붙인 다음 정리해 가는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떠들썩하면서도 리더의 주문에 따라 모두들 진지한 자세로 토론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토론 결과 발표가 태국어로 이루어져 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건설적인 의견이 많았다는 평가자의 피드백에 참가자들이 박수와 더불어 환호를 지르는 것을 보고 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6개월 정도 자문관 생활이 지나자 파견 기관 내에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외부 행사에도 관심을 가질 여유가 생겼다. 마침 태국 주재 KOTRA로부터 'K-Tech East Asia 2014'라는 행사에 참가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태국의 정보통신부와 KOTRA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 행사는 한국 측의 '전자 정부 사업 소개'와 태국 측의 '전자 정부 장기 계획 및 전략 발표' 등을 주요 주제로 진행되었다. 함께 참가한 파견 기관 직원들이 우리나라 전자 정부



1) 정보화 시범 주 방문(2014.6.) 2) 정보화 시범 마을 견학(2014.6.)



3) 현금 영수증 시스템 소개 세미나(2014.7.) 4) 태국 국세청 정보기술국 워크숍(2014.9.)

의 비약적 발전에 놀라는 모습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고, 태국 전자 정부의 현주소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세미나가 되었다.

이어서 참가한 ‘한-태 the First National Enterprise Architecture Conference 2014’ 역시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행사는 태국 정보통신부와 NIA가 공동 주최한 정보 기술 아키텍처(EA) 관련 워크숍이었다. 특히 한국의 ‘EA 구축 및 활용 성공 사례’ 발표와 태국의 ‘범정부 EA 도입 및 활성화 방안’ 토론에 참석자들이 높은 호응을 보이는 등 성공적인 행사로 마무리되었다. EA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나로서는 본 행사를 통해 EA 분야 현지 공무원 및 교수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좋은 기회가 되었다.

3분기의 생활 정보로는 의료와 쇼핑을 주제로 삼아 보았다. 태국은 의료 관광이 전체 관광객의 10%를 넘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의료진 및 첨단 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대형 병원인 경우 통역이 배치되어 있어 진료에 어려움이 없으나 외국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비싼 의료비를 부담시키므로 간단한 질병의 경우 동네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국은 거리 어디서든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의약 분업이 되지 않아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조제가 가능하며, 대부분의 약사들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약을 사는



1) K-Tech East Asia 2014(2014.7.) 2) 한-태 Enterprise Architecture K-Tech East Asia 2014(2014.8.)

데 큰 어려움이 없다.

태국은 쇼핑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백화점 및 대형 쇼핑몰이 대도시 곳곳에 산재해 있다. 특히 거의 모든 지상철(BTS)이나 지하철(MRT) 역에는 통로로 연결된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가 자리 잡고 있어 편리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외국산을 제외한 태국 공산품과 농수산물은 우리나라 물가보다 저렴한 편이다. 편의점은 일본계인 세븐일레븐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퍼져 있는데 전기료나 이동 통신료 등과 같은 각종 공과금은 물론 일부 항공사의 운임 수납까지 대행하는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2014년 4분기 활동

내가 속한 태국 국세청은 다른 정부 기관들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태국의 전자 정부를 견인해 나가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자문 활동을 통해 느낀 바로는 정보화 진행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이에 첨단 정보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도입한 기술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키기 위해 4분기 첫 세미나 주제를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Enterprise Architecture’로 정했다. 바람직한 전자 정부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주춧돌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업무 재설계와 정보 기술 아키텍처라는 두 기둥이 튼튼하게 받쳐 주어야 한다는 점을 결론 부분에서

업무 재설계 & 정보 기술 아키텍처 세미나(2014.11.)

강조했다. 참석자들도 큰 박수로 호응하면서 내 이야기에 동의해 주었다.

정신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NIPA로부터 파견 기간 연장 의사를 묻는 메일이 도착했다. 아직 하고 싶은 일도, 할 일도 많았다. 더욱이 인생 3막을 일하면서 보내겠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던가. 기간 연장을 결심하고 파견 기관 책임자에게 뜻을 전했다니 적극적으로 내 결정을 환영해 주었다. 순조로운 절차 끝에 연말이 되기 전에 연장이 확정되었고 덕분에 차분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었다.

12월에는 KOICA 태국사무소 주최로 ‘2014 한-태 우정의 밤’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KOICA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태국 공무원들을 초청해 양국 간 우의를 다지는 자리로, 태국 젊은이들의 태권도 시범과 한국 전통 농악, 젊은 KOICA 봉사단원들의 힙합 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모처럼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었다.

NIPA 주최 ‘한-아세안 개발협력 포럼’ 참석 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일도 잊을 수 없는 추억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 포럼은 한-아세안 정보 기술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동남아시아 파견 자문관들의 활동 실적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다. 저마다 분야는 달랐지만 해외 봉사라는 같은 뜻을 가진 동료 자문관들과 우의를 다질 수 있었고 오랜만에 다시 방



한-태 우정의 밤 행사(2014.12.)



한-아세안 개발 협력 포럼(2014.12.)



문한 싱가포르의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더욱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되었다.

국세청 직원은 다른 공무원들보다 권위적이고 인간미가 부족할 것이라 생각했던 나의 선입견은 연말에 진행된 일련의 행사들로 인해 바뀌었다. 대표적인 것이 ‘불우 이웃 돕기 자선 바자회’와 직원들 간 선물을 교환하는 풍속이었다. 바자회는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물품을 기증한 후 경매에 참여해 다른 사람이 기증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나 역시 한국에서 가져온 공예품 서너 가지를 내놓고 경매에 참여했다. 사회자의 구성진 호가 외침과 함께 10бат(한화 350원)부터 출발해 가격이 결정되었는데, 어떤 것은 무려 1,000бат(한화 3만 5,0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불우 이웃을 돕는다는 뿌듯함에 사회자의 구수한 입담까지 곁들여져 참가자들 모두 흥겨운 연말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었다.

연말이 다가오자 사무실 이곳저곳에서 조그만 선물을 들고 다니는 직원들이 많이 보였다. 궁금해서 물어보니 연말연시가 되면 직원들 간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이 있다고 한다. 하급자가 자신이 손수 만들거나 비교적 저렴한 선물을 상급자에게 전하면 상급자는 그 보다는 좀 더 값나가는 답례를 전함으로써 서로 지난 1년의 감사함을 표하는 것이었다. 나 또한 여러 팀장으로부터 정성이 깃든 선물을 받았고, 답례로 종무식에 쓸 케이크를 각 팀별로 하나씩 전달해 주었다.



정보기술국 불우 이웃 돕기 바자회(2014.12.)



파견 기관 직원들과의 선물 교환(2014.12.)

현지인들과 더불어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을 아는 것이 급선무일 터. 4분기의 생활 정보는 태국인의 가치관과 생활 습관, 예절 등을 조사해 보았다. 전통적 농업 국가라는 특성상 태국인들은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낙천적이며, 변화하지 않는 일상에 익숙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불교의 윤회와 업보를 믿기 때문에 공덕을 쌓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윗사람에 대한 순종과 아랫사람에 대한 관대함, 겸손 등이 태국인의 품성에 자리 잡고 있다. 인사법에 있어서도 우리와 조금 다른데, 태국인들은 반가움을 표현할 때 머리를 숙이는 대신 두 손을 합장한다.

태국인들은 평소 작고 낮은 음성으로 말하며 공공장소에서 싸우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교양 없는 행동으로 여긴다. 때문에 화가 났을 때도 감정이 직접 드러나지 않아 오히려 낭패를 겪는 경우도 생긴다. 700여 년간 지속된 왕정으로 인하여 왕실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매우 높으며, 왕족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행위는 큰 범죄로 간주되어 외국인이라도 처벌받는다고 한다.

## 2015년 1분기 활동

태국의 정부 부처는 새해가 되어도 특별히 분주하지는 않다. 회계 연도가 10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나 업무 계획 등 해가 바뀌면서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이미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새해부터 다시 시작되는 2차 연도 자문관 업무를 위해 2015년도 업무 계획을 새롭게 작성해야 했다. 새해 업무 계획에서 역점을 둔 사항은 매월 1번 이상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과 최신 정보 기술 전수 및 프로젝트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자문 활동에 더욱 힘쓰는 것이었다.

당초 계획대로 1분기에는 세미나를 3회에 걸쳐 개최했다. 1월에는 태국 국세청 정보기술국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정보 기술 아키텍처(EA: Enterprise Architecture)’를 주제로 선정하고, ‘Enterprise Architecture 5W 1H’라는 제목 아래

‘EA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EA 도입은 누가 주도해야 하며 언제 도입되어야 하는가?’, ‘어느 분야에서 활용되며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가?’ 등 개괄적인 지식 전달에 힘썼다.

2월에는 ‘The New World of Cloud Computing’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Cloud Computing의 기술 구성 요소와 서비스의 종류’, ‘도입에 따른 주요 이슈와 이슈별 해결 방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전자 정부 선진국들의 도입 사례’, ‘태국의 전자 정부 인프라를 고려한 도입 방안’ 등을 소개했다. 또한 3월에는 1월에 이어 ‘정보 기술 아키텍처’에 대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다만 발표 자료 준비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세청의 EA 구축 및 활용 사례를 조사했지만 자료 확보가 여의치 않았다. 때문에 아쉬운 대로 공개된 자료가 많은 미국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 of USA)의 사례로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

온종일 사무실에서 일해야 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비록 일 때문이라도 사무실 밖으로 출장을 나서는 것만큼 큰 즐거움이 또 있을까? 더구나 그 목적지가 유명한 휴양지거나 관광지라면 더 말해 무엇 하랴? 자문관 2년차인 나에게 이런 기회가 연달아 2번이나 주어졌으니 모처럼 찾아 온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첫 출장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태국 제2의 도시 치앙마이(Chiang Mai)였다. 사실 도심 지역은 전에도 방문한 적이 있어 큰 감흥이 없었다. 하지만 태국의 작은 스위스라고 불리는 해발 1,300m 도이앙강(Doi Ang Khang)에서의 숙박은 조용하고 차분한 휴식을 안겨 주었다. 다른 지역에 비





정보기술국 Chiangmai Field Trip(2015.2.)



정보기술국 Nongkhai Workshop(2015.2.)

해 기운이 낮아 아침저녁으로는 다소 쌀쌀했지만 시리도록 맑은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며 이름 모를 꽃들로 정갈하게 가꿔진 아름다운 꽃밭 사이를 산책하는 즐거움을 혼자 즐기기에 아까울 정도였다.

다음 출장지는 태국 북동부와 라오스 국경 지역에 위치한 농카이(Nong Khai)였다. 방콕에서 10시간 이상 버스를 타야 하는 피곤한 일정이었지만 태국 사람들도 좋아한다는 이산 지방(태국 북동부를 일컬음)의 정통 음식을 맛볼 욕심에 그마저도 즐거웠다. 농카이에 도착해 짐을 풀 숙소는 아름다운 전원 풍경을 품은 메콩 강변의 작은 호텔이었다. 타지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과 장소가 아름답겠지만 호텔에서 바라보는 풍광은 단연 최고의 모습이었다.

일행이 모이고 '바람직한 세무 공무원상'에 대해 열띤 토론이 오갔다. 그리고 그 열기를 이어 열린 조출한 파티. 직원들의 권유에 못 이겨 아리랑 노래와 어쭙잖은 춤을 선보였는데 참석자들이 즐거워해 줘서 다행이었다. 다음날 새벽, 태국에서도 으뜸이라는 해돋이를 보기 위하여 경운기를 타고 칠혹 같이 어두운 산길을 달렸던 상쾌함과 장엄하고 아름다운 일출 장면도 농카이에서 받은 큰 선물이었다.

## 2014년 2분기 활동

2015년 2분기의 세미나는 ‘전자 세금 계산서 제도’와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이라는 주제로 이뤄졌다. 우리나라의 전자 세금 계산서 제도는 세금 계산서 사기 근절 및 종이 계산서 사용에 따른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2011년도에 도입하였고, 태국은 1년 뒤인 2012년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4년여 만에 거의 모든 기업이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이용할 정도로 정착되었으나, 태국은 여전히 대다수 기업들이 종이 세금 계산서를 사용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전자 세금 계산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와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나는 한국의 성공 사례를 들어 강력한 법적 뒷받침과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번째 세미나 주제인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은 어느 분야의 관리자에게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관리 지식 및 기법을 다루는 실천 학문의 일종이다. 특히 프로젝트 성격의 업무가 많은 정보 기술 분야 종사자들에게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더불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은 정보통신대학원에서 수년간 강의한 바가 있어 익숙했다. 그러나 다뤄야 할 분야가 많았고 영문으로 발표 자료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만만치 않아 여러 번으로 나눠 강의하기로 했다. 실제로 300쪽이 넘는 발표 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하는 게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허나 언젠가 이 자료를 다시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 나 자신을 채찍질했다.

자문관으로서의 기본 업무는 파견 기관의 자문 요청에 전문적인 응답을 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보 기술 분야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우수 기술을 소개하거나 미팅을 주선하는 것도 양측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일일 터. 다른 자문관들 역시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만한 일이라 하겠다.



전자 세금 계산서 세미나(2015.4.)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1차 세미나(2015.6.)  
 한국의 소프트웨어 제품 소개(2015.4.)

내 경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업으로부터 태국 국세청에 제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한국에서 온 소식을 전하니 관련 팀장 역시 흔쾌히 받아들였고 결국 기업 관계자들이 태국 국세청을 직접 방문하여 제품 소개와 간단한 시연을 할 수 있었다.

태국에는 UN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이하 ESCAP) 본부가 있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우리 자문관들이 ESCAP 정기 총회를 참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총회 장소에는 ‘장애우를 위한 한국 기자재 기증 행사’가 함께 열리고 있었는데, 세계 각국에서 온 총회 참가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기증한 특수 휠체어와 정보 기술을 이용한 점자용 특수 자판기를 직접 시연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태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으며 생선, 닭고기, 돼지고기, 채소 등으로 만든 반찬을 곁들여 먹는다. 요리에는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짠맛, 신맛, 매운맛이 혼합된 소스를 첨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음식을 주문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태국의 유명한 음식으로는 톰얌쿱(새우를 주재료로 하여 끓인 음식), 팟타이(돼지고기, 새우, 부추, 숙주, 땅콩, 달걀 등을 넣어 볶은 요리), 솜땀(파파야를 우리나라 생채처럼 무친 음식으로 김치에 해당됨) 등이 있다. 현지인들은 실내 음식점보다 길거리 음식점에서 간단히 먹는 게 보통이다. 일본식 음식점이 전국적으로 2,000여 개가 넘을 정도로 많으며 한국 음식점도 도심 변화가에 많이 진출해 있다.

##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다

자문관 생활 동안 가장 불편하고 안타까웠던 것은 파견 기관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이었다. 물론 개개인의 성격이나 나라 간 문화 차이도 원인일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언어이다. 아무리 급한 자문 요청이라도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속수무책이니 말이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해 보고자 태국어 공부를 시도해 보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그때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라는 격언이 떠올랐고, 현지 직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태국어를 배우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쇠뿔도 단김에 빼겠다고 곧바로 담당 국장에게 한국어 기초반 개설 계획서를 승인받고 수강생 모집을 시작했다. 강의는 일주일에 월, 수, 금 3일로 하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점심시간을 이용하기로 했다. 300여 명의 정보기술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기에 20~30명 정도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막상 신청서를 받고 보니 50명이 넘었다. 많은 인원에 다소 당황스러웠지만 어떡하겠는가? 우선 교재 준비가 시급했다. 몇 군데 서점에 들러 태국어로 된 한국어 교본을 찾아봤지만 마땅한 것이 없었다. KOICA에서 발간한 교본도 검토했지만 그마저도 내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고민 끝에 교재를 직접 만들기로 했다. 책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내가 한국어와 영어로 내용

을 쓰면 태국어로 번역해 주겠다는 고마운 직원이 있어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교재는 크게 3개의 편으로 구성하고 각각 ‘사전 지식’, ‘기본 회화’, ‘응용 회화’로 구성하였다. 제1편은 다시 3개 과로 구분해 ‘한국’, ‘한국어’, ‘한글’을 설명함으로써 한국어 학습에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을 수록하였다. 총 8개 과로 구성된 제2편은 ‘처음 만났을 때의 인사법’을 시작으로 하여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등 육하원칙의 순서대로 기본 회화를 담아내기로 했다. 이후 틈틈이 내용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성은 못한 상태이다.

2015년 6월 10일은 한국어 기초반 첫 강의가 있었던 날이다. 신청 인원은 50명이 넘었지만 첫날 참석자는 40여 명이였다. 교재는 워드 파일로 만들어서 나눠 주었지만 교재만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 없었기에 발표 자료를 추가로 만들었다. 발표 자료에는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글씨뿐만 아니라 그림, 오디오, 비디오 등을 삽입했고, 매 강의마다 슬라이드 마지막 장에 한국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그림을 넣어 수강생들이 한국을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한국어 기초반 강의자료

**คู่มือภาษาเกาหลีสำหรับคนไทย**  
태국사람을 위한 한국어 길라잡이  
**Korean Language Guide for Thai People**

บรรณาธิการ : 이지호, 박은영, 이은희, 김민정  
편집자 : 이영호, 박은영, 정커아, 이라랄  
Editor : Younghe Lee, Eunyoung Park, Eunhee Lee, Minjeong Kim

한글과 태국어 자음 대조표  
Comparison of Korean and Thai Consonants  
เปรียบเทียบพยัญชนะเกาหลีและภาษาไทย

한글 자음 Korean Consonant	태국어 자음 Thai Consonant	태국어 자음 Thai Consonant
ㄱ guk	ก	ข
ㅋ kuk	ค	ค
ㆁ nguk	ง	ง
ㄷ duk	ด	ด
ㅌ tuk	ต	ต
ㄴ nuk	น	น
ㄹ ruk	ร	ร
ㅁ muk	ม	ม
ㅂ buk	บ	บ
ㅅ suk	ส	ส
ㅇ ok	อ	อ
ㅈ juk	จ	จ
ㅊ juk	ช	ช
ㅋ juk	ค	ค
ㆁ nguk	ง	ง
ㄷ duk	ด	ด
ㅌ tuk	ต	ต
ㄴ nuk	น	น
ㄹ ruk	ร	ร
ㅁ muk	ม	ม
ㅂ buk	บ	บ
ㅅ suk	ส	ส
ㅇ ok	อ	อ

한글과 태국어 모음 대조표  
Comparison of Korean and Thai Vowels  
เปรียบเทียบสระเกาหลีและภาษาไทย

한글 모음 Korean Vowel	태국어 모음 Thai Vowel	한글 모음 Korean Vowel	태국어 모음 Thai Vowel
ㅣ a	า	ㅣ ae	แ
ㅣ ya	ยา	ㅣ yeo	เยอ
ㅣ oo	อู	ㅣ ee	เอ
ㅣ yoo	ยู	ㅣ yo	โย
ㅏ o	โ	ㅑ ya	ยา
ㅓ yo	โย	ㅕ yeo	เยอ
ㅗ u	อู	ㅛ yo	โย
ㅜ yu	ยู	ㅠ yo	โย
ㅡ eu	อู	ㅝ yeo	เยอ
ㅣ i	อิ	ㅣ ee	เอ
	이	ㅣ ee	เอ



사실 한 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으로 효과적 학습을 기대하기는 힘들었다. 이에 숙제를 내주기도 하고, 받아쓰기 시험도 실시해 보았다. 기초 학습이 끝난 후 실시한 시험에는 37명이 응시했는데, 평균 80점을 얻었다. 만점자는 1명도 없었고 최고점이 95점, 최하점은 50점이었다. 그러나 기초 회화 과정의 전반부를 마친 후 진행된 시험에서는 20명이 응시해 평균 91점 나왔고, 최하점은 70점이었다. 특히 만점자가 4명이나 나온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였다.

그러나 생각만큼 원활한 것만은 아니었다. 한국어 기초반을 시작할 때는 40여 명이었던 수강생이 한 달이 지나자 30여 명으로 줄었고, 석 달이 지난 지금은 딱 절반인 20명이 되었다. ‘용두사미’라는 말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았다.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이 대부분은 취미 삼아 또는 한국 드라마를 좀 더 재미있게 보고 싶어서였으니 도중에 그만 두는 사람이 많다고 서운해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만 11월 말 종강 예정일 까지 더 이상의 탈락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강생들을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 수업에서 만나요”를 되풀이하고 있다.

어느 책에선가 ‘열정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는 글귀를 본 적이 있다. 나 역시 인생 제3막의 한가운데서 여전히 열정적으로 일하고 싶다. 한편으로는 한 명의 인간으로



한국어 기초반 개강을 기념하여(2015.6.)



한국어 기초반 중간시험을 마치고(2015.9.)

서 최선을 다할 뿐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다. 아울러 태국에서의 경험이 앞으로의 삶을 보다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본다.



태국  
이영호

-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공학박사(정보경영)
- 前 한국은행 근무
- 前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 WFK NIPA Advisors – 태국 재무부 파견